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 간호대학 · 서울성모병원 · 여의도성모병원 · 의정부성모병원 · 부천성모병원 · 은평성모병원 · 인천성모병원 · 성빈센트병원 · 대전성모병원

가톨릭중앙의료원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 (WYD) 의료지원 총괄 나선다

대외협력 · 의료지원 · 운영지원 3개 지원단 구성, 체계적인 의료지원 준비 본격화

가톨릭대학교 가톨릭중앙의료원(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 민창기 교수)이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WYD)의 성공적이고 안전한 개최를 지원하기 위한 '통합의료지휘본부'를 출범했다. 본부는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WYD) 기간 의료지원 전반을 총괄하고, 대규모 인원이 참석하는 행사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의료 상황에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구성됐다. 통합의료지휘본부장은 민창기 가톨릭대학교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이 맡는다.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WYD)는 전 세계의 가톨릭 청년들이 한자리에 모여 신앙을 나누고, 연대와 평화의 가치를 함께하는 대규모 가톨릭 축제다. 특히 비가톨릭국가 최초로 개최되는 세계청년대회(WYD)로,



한 의료지원 방안도 함께 마련할 계획이다. 의료지원단장은 전영준 가톨릭중앙의료원 기획조정실장이 맡는다.

운영지원단은 행사 기간 중 원활한 의료지원에 필요한 물자와 물류 전반을 담당한다. 각종 의료장비와 의약품 등의 구매와 확보부터 보급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해 현장 의료지원

이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운영지원단장은 배원일 가톨릭중앙의료원 병원경영실장 신부가 맡는다.

민창기 가톨릭대학교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은 "세계 각국의 청년들이 한국의 신앙과 문화를 마음껏 체험하길 응원하며, 건강하게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가톨릭중앙의료원이 든든한 의료지원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포부를 전했다.

2027년 8월 3일(화) 개막 미사를 시작으로 8월 8일(일) 폐막 미사와 봉사자들의 레오 14세 교황과의 만남을 끝으로 모든 일정이 마무리된다.

가톨릭중앙의료원은 통합의료지휘본부 산하 운영위원회를 구성해 의료지원 전략 수립과 주요 현안에 대한 의사결정, 유관 기관 협력, 현장 의료지원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한다. 운영위원회는 행사 준비 단계부터 의료지원 체계를 점검하고 발생할 수 있는 의료 상황에 대비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등 안전한 행사 운영을 위한 준비에 나설 예정이다.

이를 위해 가톨릭중앙의료원은 지난 9월 7일(월)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WYD)의 통합의료지휘본부 운영위원회의 1차 Kick-off 회의를 개최하고, 통합의료지휘본부의 조직 및 지휘체계를 공유했다.

통합의료지휘본부 산하 운영위원회는 ▲대외협력단 ▲의료지원단 ▲운영지원단으로 구성된다.

대외협력단은 대내외 공식 소통 창구 역할을 맡아 정부와 지자체, WYD 조직위원회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관련 업무를 조율한다. 권순용 가톨릭대 의대 정형외과학교실 명예교수가 통합의료지휘본부장 겸 대외협력단장을 맡는다.

의료지원단은 주요 행사장 의료지원 체계 구축과 현장 대응을 총괄한다. 행사 중 발생할 수 있는 응급환자와 각종 의료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의료지원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전 세계에서 방문한 순례자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의료지원은 물론, 레오 14세 교황과 교황 수행원을 위



2027
대회일정

8.3 화	8.4 수	8.5 목	8.6 금	8.7 토	8.8 일
이동	주교와의 만남			이동	폐막 미사
	젊은이 축제 가톨릭문화박람회				봉사자와 교황 만남
개막 미사		교황 환영 행사	십자가의 길	밤샘 기도	



간호대학의 태동기와 성장기를 함께한 참 교육자, 방용자 데레사 수녀



1976년 성바오로병원 본관 준공 기념식에서의 모습



방용자 수녀

한국 가톨릭 교회는 의료선교를 위한 전문 의료인을 양성·배출하고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였고 1954년, 가톨릭대학교 간호대학의 전신 성요셉간호고등기술학교를 개교합니다. 초기 3년제 중등교육 기관과 초급대학 과정을 거쳐 1963년 12월, 4년제 대학 교육 과정으로 인가 받는데 이는 국내에서 네 번째로 '간호학과' 인가를 받은 것입니다.

방용자 데레사 수녀님(1929~1994)은 이러한 간호대학의 '태동기'와 '성장기'의 가교 역할을 수행하며 임상 현장에서 간호사의 위상을 높이셨습니다. 특히 졸업생들을 격려하고 하나로 묶으며 가톨릭대학교 간호대학이 국내 최고로 명성을 쌓는 데 공헌하셨습니다.

방용자 수녀님은 1959년 3월, 기숙사 사감으로 부임하며 간호대학과 연을 맺었습니다. 이후 1년 동안 학생들에게 간호윤리와 종교학을 가르치셨고 1960년 6월 필리핀 성바오로 대학교로 유학을 떠나게 됩니다. 졸업 후 간호대학으로 복귀한 수녀님은 1967년부터 1971년까지 교학감(학장)을 맡았는데, 이는 기존 의대 교수(의사)가 맡던 직책에 최초로 간호사가 임명된 것이었습니다.

교학감을 맡은 수녀님은 단순 직업인 양성을 위한 기술 습득만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의학 지식과 간호 이론이 결합된 커리큘럼을 도입하여 전문직을 배출하는 교육기관으로 체질을

을 개선해 나갔고 가톨릭 영성에 기반하여 전문직으로서 엄중한 윤리의식을 지녀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더해서 학생 학술대회 토대를 만들고 학술지를 구연과 포스터 발표 형태로 진행시키는 등 학생들의 학습과 연구 역량을 강화시키고자 애쓰셨습니다.

동시에 명동 성모병원 간호과장을 두 차례 역임(제6대, 제10대)하시며, 간호사의 지위 향상과 전문화, 강습과정을 통한 지도자 양성 등 간호과의 현대화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셨습니다. 성모병원에서 수간호사 4명과 간호수녀 1명이 처음으로 해외 연수를 가게 된 것도 바로 이 시기(1963년)의 일입니다.

수녀님은 경영자·병원장으로도 CMC 발전에 공헌하셨습니다. 1973년부터 1990년 1월까지 성바오로병원장을 맡으셨는데, 이 시기 병원은 눈부신 발전을 거듭합니다. 1976년 11월엔 지하 2층 지상 10층의 현대식 건물을 준공하여 병상수를 확장하였고 1982년엔 12월엔 지하2층 지상 7층의 별관 신축, 1990년 3월에는 지하 1층 지상 6층의 바오로관을 완공하여 시설을 확충합니다. 1978년 한국순환기센터, 1981년 뇌신경통증연구소, 1983년 1월 종합건강관리소 부설 등 진료역량도 나날이 확대되었습니다. 이처럼 발전을 거듭한 성바오로병원은 2019년 은평성모병원으로 다시 개원하며 오늘날 CMC 의료 네트워크의 단단한 한 축을 맡고 있습니다.

수녀님께서는 엄격한 교육자의 모습만 지니지 않으셨습니다. 13대 교학감 노유자 수녀님의 회고에 의하면 간호대학 졸업생들의 경조사에 일일이 찾아와 제자들을 사랑으로 보살피셨다고 합니다. 또한 1965년 간호대학 동창회 발족에도 기여하셨는데 '한국 샬트르 성 바오로 수녀회 100년사'에 따르면 이러

한 수녀님의 헌신에 귀감을 받은 가톨릭대학교 간호대학 졸업생 중 많은 인원이 수녀회에 입회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개혁자의 길을 걷던 방용자 수녀님은 1991년 간호대학 교수에서 퇴임함으로써 CMC에서의 소임을 마칩니다. 이후 공소건립과 보육원 원장으로 수도자로서의 삶을 사시던 중 뒤늦게 발견한 간암으로 투병하시다 1994년 주님의 곁으로 선종하십니다.

방용자 수녀님은 생전 성바오로병원 25년사 발간사를 통해 "우리 주위에는 부활과 생명을 갈망하며 온몸으로 소망하는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우리는 의료사업을 통해 이들의 소망이 실현되도록 도와야 할 책임이 있는 사람들입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듯 의료인의 소명과 책임의식을 늘 강조했던 방용자 수녀님의 가르침은 오늘날 '생명을 존중하고 전문적 역량을 갖춘 간호사'라는 간호대학의 교육목표와 '몸과 마음이 치유되는 좋은 병원'을 목표로 하는 은평성모병원 경영 비전으로 우리 곁에 남아 있습니다.

▶ 간호대학은 초기 성요셉간호고등기술학교, 가톨릭대학 의학부 간호학교/간호학과 등 시대에 따라 명칭이 변화해 왔으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현재 기준 가톨릭대학교 간호대학으로 일괄 표기합니다.

▶ 간호사 명칭은 1987년 11월 의료법 개정 전까지 '간호원'으로 사용되었으나 본문에서는 간호사로 일괄 표기합니다.



백혈병 세포만 골라 없애는 치료 후보물질가능성 입증

암세포 스스로 죽게 하는 표적 치료 후보물질, 전임상으로 가능성 확인



조병식 교수, 광대훈 교수

서울성모병원 혈액병원과 신약 개발 기업 핀테라퓨틱스 공동 연구팀(공동 교신저자 혈액내과 조병식 교수, 핀테라퓨틱스 조현선 대표 / 공동 제1저자 혈액병원 광대훈 교수, 김보름 연구원, 핀테라퓨틱스 김혜민, 최훈)이 급성골수성백혈병에서 암세포만 스스로 죽게 만드는 표적 치료 후보물질 PinA1의 전임상 효과를 확인했다.

급성골수성백혈병은 골수 내 미성숙 혈액세포가 과다 증식하는 난치성 혈액암이다. 재발하면 예후가 급격히 나빠져 독성을 줄이면서도 효과적인 신규 치료제 개발이 절실했다.

후보물질 PinA1은 세포 내 단백질 분해 시스템을 이용한 분자접착 분해

제다. 암세포 생존에 필수적인 CK1α 단백질을 분해해 p53 단백질을 활성화하고, 이를 통해 암세포의 자멸을 유도하는 원리다. 연구팀은 2,000여종의 화합물 설계와 500종 검증을 거쳐 이를 도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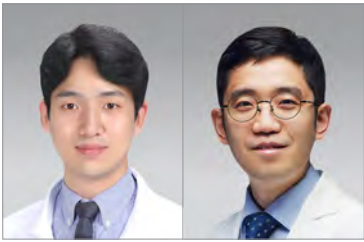
실험 결과, PinA1은 극미량으로도 CK1α를 분해해 암세포 증식을 억제했으며, 정상 혈액·골수세포에는 고농도에서도 독성을 거의 보이지 않았다. 또한 실제 임상에서 쓰이는 FLT3 표적 항암제와 병용하면 암세포 사멸 효과가 강화되고 생존 기간도 유의미하게 연장됐다.

이번 연구 성과는 미국암연구학회 공식 학술지 《Cancer Research》(IF=22.6) 8월호에 게재됐다.



지방간 환자, 복부초음파로 간암·합병증 위험까지 가려 낸다

이재준 · 이순규 교수팀, 지방간 환자 2,817명 분석... 총 6,004인년 규모 장기 추적



이재준 교수, 이순규 교수

구팀은 복부초음파 장비에 탑재된 전단파 탄성초음파(SWE)가 기존의 별도 장비를 이용한 간 섬유화 검사(VCTE)와 유사한 수준으로 지방간 환자의 간암과 간질환 합병증 위험을 예측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연구 결과는 미국간학회 공식 학술지

가톨릭대학교 은평성모병원 소화기내과 이재준 교수(제1저자)와 인천성모병원 소화기내과 이순규 교수(교신저자) 연

《Hepatology》(IF=18.0)에 게재됐다.

현재 주요 진료지침에서는 혈액검사 수치로 계산하는 간 섬유화 지표(FIB-4)를 먼저 확인한 뒤, 별도의 간 섬유화 검사 장비(FibroScan)로 간의 단단한 정도를 측정하는 진동제어 순간탄성측정법(VCTE)을 시행하는 2단계 위험 평가 전략을 권고하고 있다. 이에 연구팀은 별도의 장비가 필요한 VCTE 대신 일 반적인 복부초음파 검사 과정에서 함께 시행할 수 있는 전단파 탄성초음파(SWE)에 주목하고, SWE 기반 2단계 평가의 예측 성능을 기존 VCTE 기반 평가와 비교·검증했다.

연구팀은 같은 날 두 검사를 모두 받은 대사이상 지방간질환 환자 2,817명(총 추적관찰 기간 6,004인년)을 분석했다. 분석 결과, 장기 예측 성능을 나타내는 통합 AUC 비교에서 미국소

화기학회와 유럽간학회 기준 모두 두 검사 사이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며, 두 검사가 환자를 같은 위험군으로 분류한 비율도 90% 이상으로 높았다. 또한 SWE 분류상 위험 단계가 높을수록 간 관련 합병증 발생 위험이 뚜렷하게 증가해, SWE가 장기예후를 효과적으로 구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연구는 복부초음파 검사와 동시에 시행할 수 있는 SWE를 FIB-4와 결합하면 기존 VCTE와 유사한 수준으로 지방간 환자의 고위험군을 선별할 수 있음을 입증했다. 특히 별도의 VCTE 장비를 갖추기 어려운 의료기관에서도 기존 초음파 진료 과정에 간경도 평가를 통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임상적 의미가 크다.



간동맥 주입항암치료, 표적치료제 대비 효과 밝혀

간동맥 주입항암치료를 이용한 간암 다학제 치료 새 기준 제시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성필수 교수 연구팀(의정부성모병원 남희철 교수, 경북대학교 유재성 박사, 서울성모병원 탁권용 임상강사, 영상의학과 오정석 교수)은 1차 면역항암 치료 후에도 병이 진행한 간세포암 환자에게 2차 치료로 간동맥주입항암치료(HAIC)가 경구 표적항암제보다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를 영상의학 분야 권위지 《Radiology》(IF=17.6)에 발표했다.

연구팀은 이 같은 진행성 간세포암 환자 90명을 분석했다. 이 중 51명은 간동맥을 통해 항암제를 집중 전달하는 국소 치료인 HAIC를, 39명은 경구 표적항암제(티로신키나제 억제제) 치료를 받았다. 분석 결과, 객관적 반응률은 HAIC군(35.3%)이 표적항암제군(5.1%)보다 약 6.9배 높았고, 질병조절률과 무진행 생존 기간도 HAIC군이 모두 우수했다. 특히 HAIC군은 간동맥 침범 등 고위험 환자 비율이 더 높았음에도 종양 조절 효과가 뛰어났고 치료 중단율도 낮았다.

다만 연구팀은 타 장기 전이가 있거나 내원이 어려운 환자에게는 전신 치료제인 경구 표적항암제가 여전히 유용한 만큼, 병변 특성에 맞춘 환자 선별이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난치성 폐섬유증, '멜라토닌·mRNA 나노입자'로 잡는다

mRNA 전달 효율과 중간엽줄기세포 항산화 기능 강화

가톨릭대학교 가톨릭중앙의료원 기초의학사업추진단 합성생물학사업단장 구희범 교수(교신저자)와 의과대학 의생명과학교실 박지선 박사·조보민 연구원(공동 제1저자) 연구팀이 멜라토닌과 NRF2 mRNA를 함께 탑재한 지질나노입자(LNP)로 중간엽줄기세포(MSC)의 기능을 강화하는 기술을 개발했다. 연구 결과는 생체재료 분야 권위지인 《Biomaterials》(IF=13.6)에 게재됐다.

조직 재생 능력이 있는 중간엽줄기세포는 폐섬유증 치료 후보로 주목받아 왔지만 열악한 체내 미세환경에서 치료 기능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다. 폐 조직이 딱딱하게 굳는 폐섬유증 역시 기존 치료제로는 진행을 늦추는 데 그쳤다.

이에 연구팀은 멜라토닌과 NRF2 mRNA를 동시 탑재한 LNP를 중간엽줄기세포에 처리하는 전략을 세웠다. 특히 멜라토닌은 자체 항산화 작용 외에도 LNP 막의 유동성을 높이고 엔도솜 탈출을 촉진해 mRNA의 세포 내 전달 효율을 끌어올리는 역할을 했다.

그 결과 기능이 강화된 중간엽줄기세포에서는 활성산소, 세포사멸, DNA 손상이 감소하며 항산화 기능이 향상됐다. 또한 폐섬유증 마우스 모델에 주입했을 때 폐 조직 손상과 콜라겐 축적이 줄고 섬유화 지표가 유의하게 억제되는 치료 효과를 입증했다.



삼중 병용요법으로 '항암제 내성' 극복 단서 제시

내성 종양 성장 억제하고 수술 후 재발까지 차단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생리학교실 위진홍 교수와 서울성모병원 류마티스내과 김완욱 교수 연구팀이 항암화학요법의 내성을 극복하고 수술 후 종양 재발을 억제하는 새로운 병용치료 전략을 제시했다.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 《Journal of Nanobiotechnology》(IF=15.0)에 게재됐다.

고형암 치료의 한계인 약물 획득 내성과 잔존암 재발을 극복하기 위해, 연구팀은 독자적으로 설계한 암 나노백신과 기존 항암제인 독소루비신, 면역관문억제제를 결합한 '삼중 병용요법'을 개발했다.

독소루비신 내성 종양 동물 모델에 삼중 병용치료를 시행한 결과 단독 치료 대비 종양 성장이 크게 억제됐으며, 암세포의 항암제 내성 특성 자체도 완화됐다. 또한 수술 후 재발 모델에서는 관찰 기간 동안 종양이 전혀 재발하지 않았고, 주요 장기 조직에서 유의미한 독성도 관찰되지 않아 안전성도 확인했다.



항암제 부작용 난청 막는 약물 전달법 개발

기존 치료 단점 보완·청력 보존 확인

가톨릭대학교 대전성모병원 이비인후과 김동기 교수 연구팀은 최근 성균관대학교 글로벌바이오메디컬공학과 신미경 교수팀과 함께 고형암 치료 중 항암제 부작용으로 발생하는 난청을 막을 수 있는 약물 전달 기술을 개발했다.

기존에는 고형암 치료 시 널리 사용되는 항암제 '시스플라틴'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 싸이오황산 나트륨을 사용했으나, 전신 투여 시 항암제 효과까지 떨어뜨리고, 귀 부위에만 국소 투여 시에는 금방 씻겨 나가 효과가 오래가지 못했다.

이에 연구팀은 히알루론산으로 작은 알갱이를 만들어 싸이오황산 나트륨을 담고, 여기에 히알루론산 용액을 섞어 매우 가는 바늘로도 주사할 수 있는 제형을 개발했다.

동물실험 결과 이 제형을 미리 주입한 군에서는 항암제 투여 후에도 청력이 잘 보존됐고, 달팽이관에 쌓이는 항암제 백금 성분도 줄었다. 반면 간에 남은 백금 농도는 유지돼 항암 효과는 그대로 지키면서 청력만 선택적으로 보호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

이번 연구 결과는 바이오공학분야 국제학술지 《Materials Today Bio》(IF=11.0) 10월 호에 게재 예정이다.



어려운 심혈관질환, 인천성모병원에서 믿고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인천성모병원 심장혈관내과 최익준 교수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 심혈관센터장과 심장혈관내과 임상과장, 중환자실 총괄실장을 맡고 있는 최익준 교수는 관상동맥질환과 구조적 심장질환, 말초혈관질환을 아우르는 중재시술 전문가다. 혈액학적으로 불안정한 중증 환자가 막힌 혈관을 중재시술로 뚫은 뒤 극적으로 호전돼 퇴원하는 모습에 매력을 느껴 이 길을 택했다. 미국 스탠퍼드대학교병원에서 연수를 거친 그는 다학제 심장팀(Heart Team)과의 긴밀한 협진을 바탕으로 최근 'TAVI(경피적 대동맥판막 치환술) 200례 달성'이라는 값진 결실을 이끌어냈다. 이와 함께 심혈관센터 이전 및 재단장으로 중증 심혈관질환 진료 체계를 한층 강화한 최익준 교수를 만나, 다학제 협진 체계와 향후 비전을 들었다.



최근 인천성모병원이 TAVI(경피적 대동맥판막 치환술) 200례를 달성했습니다. 심장혈관내과, 심장혈관 흉부외과,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등이 함께했는데 팀의 유기적인 협진 시스템과 시술 성공 노하우는 무엇입니까?

사실 TAVI 200례는 아주 많은 숫자는 아닙니다. 그 숫자의 의미보다 중요한 것은, 그 과정을 거치며 심장팀(Heart Team)의 경험과 시스템이 함께 축적됐다는 점입니다.

TAVI는 한 명의 시술자가 단독으로 시행할 수 없습니다. 심장혈관내과를 비롯해 심장혈관흉부외과,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등 여러 분야의 의료진이 환자 한 분 한 분을 함께 평가해야 합니다. 환자의 전신 상태와 대동맥판막의 구조, 혈관 상태, 수술 위험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최적의 치료 방향을 결정합니다.

저희 센터는 시술 전 CT 영상과 심초음파를 매우 세밀하게 분석합니다. 판막의 크기, 접근 혈관의 선택, 혈관 합병증 위험까지 팀이 함께 확인해 예상 문제를 사전에 찾아냅니다.

TAVI는 대부분 안전하지만, 고령에 여러 질환을 동반한 환자가 많아 돌발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때 여러 과가 즉각 협력할 수 있다는 것이 저희 심장팀의 큰 강점입니다.

결국 저희의 성공 노하우는 특정 술기 하나라기보다 철저한 사전 평가, 충분한 팀 논의, 그리고 문제 발생 시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유기적인 협진 체계입니다.

환자에게 TAVI 시술을 결정할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기준은 무엇이며, 기억에 남는 치료 사례가 있다면 소개 부탁드립니다.

척추후만증이 매우 심한 60대 여성 환자가 중증 대동맥판막 협착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비교적 젊은 연령이라 우선 수술적 치료를 고려해 심장혈관흉부외과와 상의했으나, 척추 변형이 워낙 심해 앞가슴을 통한 수술적 접근이 어렵고 전신마취 위험도 크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오히려 심장혈관흉부외과에서 TAVI 시술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TAVI 시술 경로인 대퇴동맥(사타구니 동맥) 역시 심한 척추후만증 때문에 접근이 불가능했습니다. 경동맥 접근을 위해서는 외과적 수술이 필요했고, 이에 심장혈관흉부외과 교수님이 수술로 경동맥 접근로를 안전하게 확보

해 주셨으며, 그 길을 통해 TAVI 시술을 무사히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심장팀이 협력해 하이브리드(수술+시술)로 치료를 성공적으로 이끌어낸 뜻깊은 사례였습니다.

최근 있었던 심혈관센터의 이전 및 재오픈과 관련해 환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가장 큰 변화는 무엇이며, 센터장으로서 어떤 포부와 운영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중재시술을 받는 심장질환 환자들은 대부분 상태가 위중합니다. 시술 후 바로 옆에 위치한 심장중환자실로 빠르게 이동해 집중 관리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이 이번 이전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또한 응급 상황 발생 시 여러 의료진이 언제든지 즉시 환자 처치에 참여할 수 있는 동선을 확보했다는 점도 큰 변화입니다.

심장혈관내과 임상과장으로서도 추구하는 목표나 비전이 있으실까요?

의사 한두 명이 잘한다고 심장혈관내과 전체가 발전할 수는 없습니다. 최근 심장질환은 관상동맥, 심부전, 판막, 부정맥, 심장영상 등 각 분야가 매우 빠르게 세분화되고 발전하고 있어, 한 의사가 모든 영역을 완벽히 도맡기는 어렵습니다.

임상과장으로서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각 교수

의 전문성을 극대화하면서도, 실제 진료 현장에서는 그 전문성들이 유기적으로 하나로 연결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환자와 의료진 모두가 "어려운 심혈관질환이라면 인천성모병원에서 믿고 치료받을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심장혈관내과를 만드는 것이 제가 추구하는 방향입니다.

환자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심혈관질환은 갑자기 발생하는 것처럼 보여도 고혈압, 당뇨, 이상지질혈증, 흡연 등 위험요인이 오랜 시간 축적되어 나타납니다. 따라서 증상이 생겼을 때의 치료 못지않게 평소 위험요인을 철저히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가슴을 짓누르는 통증이나 압박감이 지속되거나,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차는 증상이 새로 나타난다면 나이나 체력 탓으로 넘기지 말고 진료를 받아보셔야 합니다. 갑작스러운 흉통과 식은땀, 심한 호흡곤란이 동반된다면 지체 없이 응급실을 찾아야 합니다.

다만 모든 환자에게 시술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가장 좋은 치료는 가장 최신의 치료가 아니라, 그 환자에게 가장 적합한 치료라고 생각합니다. 의료진과 충분히 상의해 본인에게 가장 잘 맞는 치료를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한 집안이 함께 걸어온 길, **삶 전체로 스며든 간호의 힘**

여의도성모병원 PI팀 김수영 선임

어머니부터 4남매, 그리고 올케와 사촌들까지 간호사만 무려 9명. 최근 서울특별시간호사회에서 4남매의 간호 경력 50년을 인정받아 '가문의 영광상'을 수상한 가톨릭대학교 여의도성모병원 PI팀 김수영 선임의 이야기다. 2013년 여의도성모병원에 입사해 병동 임상을 거쳐 현재 환자안전과 의료 질 향상을 책임지는 PI팀에서 활약 중인 그는, 가족이자 가장 가까운 동료들과 함께 간호의 가치를 이어가고 있다. 사람과 시스템을 돌보며 성장해 온 김수영 선임의 진솔한 이야기를 전한다.



가족들이 오랜 시간 함께 간호계에 몸담아왔는데, 본인에게 '간호'란 어떤 의미인가요?

제가 간호를 좋아하는 이유는 내가 배운 지식과 경험이 누군가를 더 안전하게 돌보는데 직접 쓰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간호는 삶 가장 가까이에 있는 학문입니다. 사람이 태어나 성장하고, 아프고, 회복하고, 삶을 마무리하는 모든 순간에 간호가 닿아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배운 것들은 병원 문을 나선다고 끝나지 않습니다. 나 자신을 돌볼 때도, 가족이나 아이를 살필 때도 일상 속에 자연스럽게 스며듭니다.

저희 가족이 각자의 자리에서 오랫동안 간호의 길을 걷고 있는 이유도 비슷합니다. 배운 것이 일로만 끝나지 않고 결국 삶에도 온전히 남는다는 점, 그것이 간호가 가진 가장 큰 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울특별시간호사회 80주년 행사에서 4남매의 누적 50년 이력을 인정받아 '가문의 영광상'을 수상하셨습니다. 소감이 어떠신가요?

4남매라고 하면 한 번 놀라고, 네 명이 모두 간호사라고 하면 한 번 더 놀라시곤 합니다. 평소에는 워낙 익숙한 모습이라 특별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이번 상을 준비하면서 가족들의 이력을 정리해 보니 저희 4남매가 간호사로 일해 온 시간만 어느새 50년이 되었더라고요. 그때 저도 처음으로 '우리 가족이 조금 특별하긴 하구나' 싶었습니다.



한 집안에서 형제자매들이 모두 간호사의 길을 선택하게 된 계기가 있었나요?

시작은 간호사 출신이신 어머니였습니다. 진로를 고민할 때 직업의 장점과 다양한 진로를 조언해 주셨고, 첫째 언니가 먼저 간호학을 선택하자 저와 동생들도 자연스럽게 뒤를 이었습니다.

특히 언니(08학번), 저(09학번), 여동생(10학번)이 1년 간격으로 입학했는데, 지금 생각하면 이 시차가 절묘했습니다. 앞

선 사람이 임상에서 고생하는 모습을 충분히 보기도 전에 다음 사람이 이미 입학해 있었거든요. 이후 막내 남동생까지 합류하며 결국 4남매 모두 간호사가 됐습니다.



다들 같은 직업이다 보니 통하는 부분이 많을 것 같습니다. 기억에 남는 대화나 일화가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예전에는 4남매가 모두 교대근무를 하다 보니 정해진 '가족 식사 시간'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식탁에 함께 앉는 날이면 자연스럽게 간호 이야기가 시작됐습니다.

"너희 병원에서는 이 업무를 누가 해?", "인증조사는 언제 끝나?"처럼 각 병원의 업무방식이나 경험을 비교하는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처음엔 모두 임상으로 시작했지만, 지금은 언니는 간호대에서 가르치고, 저는 PI팀, 여동생은 연구, 남동생은 정형외과 PA, 올케는 응급실 간호사로 각자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특히 저는 PI 업무를 하며 현장의 방식이 궁금할 때가 많은데, 가족들과 이야기하며 새로운 관점이나 아이디어를 얻곤 합

니다. 가까운 가족이면서 서로 다른 현장을 경험한 동료가 여럿 있는 셈입니다.



현재 PI팀에서 환자안전과 의료 질 향상 업무를 맡고 계십니다.

임상 간호사 시절과 비교했을 때 현재 업무의 주요 역할과 보람은 무엇인가요?

임상에서는 눈앞의 환자에게 간호를 직접 제공했다면, PI팀에서는 병원 전체의 일이 어떻게 연결되고 흘러가는지 더 넓게 보게 됩니다.

문제를 발견해 원인을 분석하고, 부서들과 개선안을 찾아 적용한 뒤 보완하는 '찾고, 분석하고, 바꾸고, 재확인하는 과정'의 반복입니다.

일하며 느낀 점은 PI팀이 혼자 정답을 만드는 곳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듣고 부서 간 입장을 조율하며 지속 가능한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반복되던 문제가 개선되어 새로운 기준과 시스템으로 자리 잡을 때 가장 보람을 느낍니다. 임상에서 환자 한 분 한 분의 안전을 지켰다면, 지금은 더 많은 환자들에게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과정을 다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원내 동료 및 선배 간호사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부탁드립니다.

부서마다 막내 생활을 길게 하며 '선배 복'이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신규 시절 서툰 저를 묵묵히 기다려주셨던 선배님들, 새로운 업무의 길을 터주셨던 분들, 지금도 곁에서 함께 고민해 주는 동료들에게 지면을 빌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어느덧 후배도 많은 연차가 되었습시다. 거창한 수식어보다는 "편하게 물어볼 수 있는 사람", "같이 일하면 마음이 놓이는 동료"로 기억되고 싶습니다. 제가 병원에서 받았던 따뜻한 배려들을 이제는 후배들에게 차근차근 돌려주고 싶습니다.



폐암, 이제는 '조기 발견'



다학제 협진, 진료과의 경계를 넘어 원팀으로



최근 폐암 치료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국가폐암검진과 저선량 흉부 CT를 통한 조기 발견이 활성화되면서 초기 폐암을 발견하는 기회가 늘었고, 수술 역시 최소침습과 폐 기능 보존을 중심으로 발전하고 있다.

폐암은 하나의 치료법만으로 모든 환자를 치료하기 어려운 질환이다. 같은 폐암이라도 발견 시기

와 병기, 종양의 위치와 크기, 조직학적 특성 등에 따라 적합한 치료 방법이 달라진다. 또한, 진행성 폐암에서는 유전자 변이를 기반으로 한 표적치료와 면역항암치료 등이 활용되면서 치료 선택지가 다양해졌다.

이 때문에 폐암 치료에서는 다학제 통합진료가 중요하다. 은평성모병원 폐암센터는 폐결절과 폐암의 정확한 진단부터 수술, 항암치료, 방사선치료까지 폐암 치료의 전 과정을 아우르는 통합 진료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호흡기내과, 심장혈관흉부외과, 종양내과, 방사선종양학과, 영상의학과, 핵의학과, 병리과 등 각 분야의 전문 의료진이 긴밀하게 협력하며 환자의 상태와 병기에 따른 최적의 치료 방향을 함께 결정한다.

과거에는 진료과별로 각각 치료 계획을 세웠다면, 다학제 진료에서는 여러 분야의 전문 의료진이 환자의 상태를 함께 바라본다. 수술이 적합한 환자인지, 항암치료가 필요한지, 방사선치료를 병행해야 하는지 등 치료 과정 전반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다.

이러한 협진은 실제 진료 현장에서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2019년 개원 이후 폐암 다학제 협진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전체 협진 의약 97%가 대면 협진으로 진행될 만큼, 환자와의 직접적인 소통을 중시하고 있다. 대면 협진에서는 환자와 보호자가 직접 참여해 의료진으로부터 자신의 상태와 치료 선택지에 대한 설명을 듣고, 함께 치료 방향을 논의한다. 이를 통해 의료진이 일방적으로 치료 방법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환자와 보호자가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치료 결정에 참여하는 환자 중심의 의사결정을 지향하고 있다.

은평성모병원 폐암센터 의료진이 한 팀으로 움직이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정확한 진단과 적절한 치료를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환자에게 필요한 의료가 진료 과정에서 단절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다학제 협진의 핵심이다.



폐결절부터



폐암 치료의 시작은 정확한 절의 크기와 모양, 성상 등을 정하고 있다. 폐결절은 대부분 양성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정기적인 관찰이 필요하다.

폐암으로 진단된 이후에는 병기, 유전자 변이 등을 통해 종양을 제거하면서 폐 기능을 보존하는 방향으로 정밀 방사선치료를 통해 표적치료를 적용하고, 면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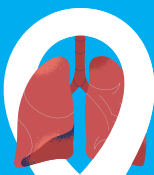
또한 폐암 치료는 진단 당시의 병기와 환자의 신체적 상태로 살피는 것이 중요하다. 치료 방향을 조정하고, 치료 이후에도

은평성모병원 폐암센터는 폐암의 예방·진단·치료까지의 통합 진료체계를 갖추고 있다.



치료 이후의 삶까지 함께하는 폐암센터

폐암 치료의 목표는 단순히 암을 치료하는 데서 끝나지 않는다. 치료 이후 환자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 건강한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은평성모병원 폐암센터는 치료 후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관리하고, 재발 여부를 지속적으로 추적하며, 금연교육과 만성질환 및 생활습관 개선 등 폐암을 이제 더 이상 '진단되면 곧바로 절망해야 하는 질환'으로만 바라볼 필요가 없다. 조기에 발견하면 완치를 기대할 수 있고, 진행성 폐암을 이어가는 환자가 늘고 있다. 실제로 국내 폐암 5년 상대 생존율은 2001~2005년 16.6%에서 2019~2023년 42.5%로 크게 향상됐다. 조기에 발견하고, 정확하게 진단하고, 환자에게 맞는 치료를 선택하는 것. 그리고 치료 이후에도 건강한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함께 살아가는 환자와 함께하며 폐암 치료의 새로운 길을 만들어가고 있다.



폐암센터 의료진

호흡기내과



이상학 교수
[진료 분야]
폐암 및 폐결절,
기관지경치료

호흡기내과



여창동 교수
[진료 분야]
폐암 및 폐결절,
기관지경치료

심장혈관흉부외과



안세하 교수
[진료 분야]
폐암 및 폐결절,
최소침습 흉강경
수술

종양내과



이지영 교수
[진료 분야]
폐암 항암치료

방사선종양학과



김진아 교수
[진료 분야]
흉부 종양
방사선치료

원 폐암센터 ‘부러’ ‘맞춤 치료’까지

전이성 폐암까지, 환자 맞춤형 정밀치료



진단이다. 최근 건강검진 등에서 폐결절이 발견되는 환자가 늘면서 결
정확히 파악하고 적절한 시기에 필요한 검사를 시행하는 것이 중요해지
병변이지만 일부는 폐암과 관련될 수 있어 세밀한 영상 판독과 추적관

병기와 종양의 특성에 따라 치료 전략을 달리한다. 초기 폐암은 수술을
능을 보존하는 치료를 고려하며, 수술이 어려운 경우나 수술 후 재발 예
시행할 수 있다. 진행성 폐암에서는 EGFR, ALK 등 유전자 변이를 확인
항암치료 등 다양한 약물치료를 환자의 상태에 맞춰 선택한다.

의 병기뿐 아니라 치료 과정에서 나타나는 변화와 환자의 상태를 지속
치료 효과와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면서 필요에 따라 치료 방
재발 여부를 추적하며 환자의 건강 상태를 관리한다.

결절의 진단과 추적관찰부터 초기 폐암의 수술, 항암·방사선치료, 진
폐암의 진행 단계와 환자의 상태에 맞춰 최적의 치료 방법을 선택하는

록 돕는 것 역시 중요한 치료의 과정이다.

활습관 관리 등을 통해 환자의 치료 후 삶까지 살피고 있다.

성 폐암 역시 다양한 치료 방법을 통해 질환을 안정적으로 조절하며 일
다.

하는 것. 은평성모병원 폐암센터는 진단부터 치료, 그리고 치료 이후의



단일공 흉강경 폐암 수술로 폐 기능을 지킨다



폐암 수술은 종양을 안전하게 제거하는 동시에 환자의 폐 기능을 최대한 보존하는 것이 중요하
다. 은평성모병원 폐암센터에서는 단일공 흉강경을 이용한 최소침습 폐암 수술을 시행하며, 환자
의 수술 후 통증과 회복 부담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단일공 흉강경 수술은 여러 개의 절개창을 이용하는 기존 흉강경 수술과 달리 하나의 절개창을
통해 수술하는 방식이다. 숙련된 의료진의 정밀한 수술을 통해 필요한 범위의 폐와 림프절을 충분
히 절제하면서도 절개를 최소화해 환자의 통증과 회복 부담을 줄일 수 있다.

특히 은평성모병원 폐암센터는 폐 기능을 최대한 보존하는 수술 전략을 적극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종양의 위치와 크기, 형태 등을 세밀하게 살펴 폐엽 전체를 절제하는 대신 병변이 위치한 구
역을 선택적으로 절제하는 구역절제술을 적용한다. 일부 부분고형 결절은 이 같은 제한적 절제술
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환자에게 필요한 수술 범위를 면밀히 결정해 수술 후 삶의 질까지 고려한
치료를 이어가고 있다.

수술의 목표는 종양을 제거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수술 후 환자가 일상으로 원활하게 복귀할 수
있도록 회복 과정까지 세심하게 살피는 것 역시 중요하다. 은평성모병원 폐암센터는 최소침습 수
술을 바탕으로 환자의 수술 부담을 줄이고, 보다 편안한 회복과 일상 복귀를 돕고 있다.



핵의학과



박혜림 교수
[진료 분야]
흉부 종양 핵의학

핵의학과



권수진 교수
[진료 분야]
흉부 종양 핵의학

영상의학과



이배영 교수
[진료 분야]
흉부 영상의학

영상의학과



유진영 교수
[진료 분야]
흉부 영상의학

병리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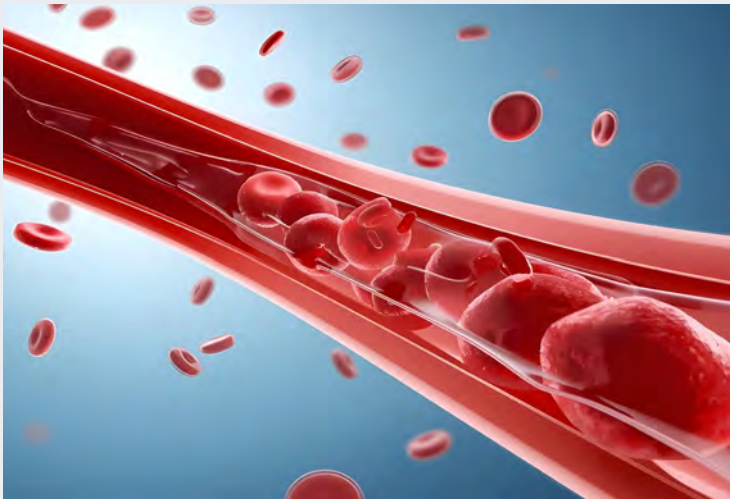


이영섭 교수
[진료 분야]
심폐 병리

박사의 진료현장

면역저하 환자의 생명을 지키는 방어막 혈액질환 감염의 조기 진단과 맞춤 치료

서울성모병원 감염내과 조성연 교수



혈액질환 치료의 숨은 복병, '감염'을 잡아라

백혈병, 림프종, 다발골수종 등 혈액질환 환자들은 항암 화학요법이나 조혈모세포이식(골수 이식)을 받는 과정에서 면역세포의 핵심인 백혈구(호중구) 수치가 급격히 감소합니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가벼운 감기나 스쳐 지나가는 균에 불과한 병원체가 면역 기능이 바닥난 혈액암 환자에게는 순식간에 전신으로 퍼져 패혈성 쇼크를 일으키는 치명적인 위협이 됩니다. 이처럼 면역저하 상태에서 발생하는 기회감염은 암 자체의 치료 성패는 물론 환자의 생존을 직접적으로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입니다. 따라서 혈액질환의 항암 치료는 곧 '감염과의 끈질긴 싸움'과 궤를 같이합니다.

체온계 38°C의 경고, 면역세포가 바닥났을 때 나타나는 응급 신호

진료실에서 환자와 보호자분들께 “체온계가 38.0°C를 넘기면 해열제를 먹고 기다리지 말고 즉시 응급실로 오셔야 한다”고 강조하면, 가벼운 감기 기운인데 유난스러운 것이 아니냐고 묻기도 하십니다. 하지만 항암치료로 면역세포(호중구)가 결핍된 상태에서 발생하는 열을 의학적으로 '호중구감소성 발열'이라고 부르며, 이는 곧 몸속에 심각한 감염이 침투했음을 알리는 위급한 신호입니다. 면역세포가 부족하면 기침, 가래, 통증 같은 일반적인 염증 반응조차 겉으로 나타나지 않은 채 오직 '열' 하나만으로 패혈증이 급속히 번집니다. 이때 1시간 이내에 혈액 배양 검사를 마치고 광범위 항생제를 즉시 투여하는 '골든타임'을 지켜내는 것이 환자의 생명을 구하는 결정적인 분수령이 됩니다.

신속한 진단과 철저한 예방이 생존율을 높입니다

최근 진균(곰팡이) 감염이나 다제내성균의 출현이 늘어나면서, 정밀 분자진단 및 바이오마커를 활용해 원인균을 조기에 규명하고 선제적으로 항진균제·항바이러스제를 투여하는 맞춤형 예방 및 치료 전략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특히 조혈모세포이식 전후나 집중 항암치료 기간에는 감염내과 전문의와의 긴밀한 협진을 통해 무균 환경 관리, 감염 예방약 복용, 격리 지침 준수 등 촘촘한 감염 예방 프로토콜이 작동해야 합니다. 면역이 회복될 때까지 환자의 곁에서 감염의 틈을 단단히 막아내는 정밀한 감염 관리가 뒷받침될 때 비로소 완치를 향한 안전한 여정이 완성될 수 있습니다.

서울성모병원 감염내과 **조성연** 교수

진료 분야 혈액질환 환자의 감염예방, 진단, 치료

진료 시간 [오전] 수 [오후] 월



2026 겨자씨키움센터 DEMODOY6

겨자씨키움센터와 함께한 6기 미래위원들의
최종 무대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부스·포스터 전시존 | 옴니버스파크 L층 로비

가톨릭대학교 성의교정 옴니버스파크 L층 컨벤션 홀
서초구 반포대로 222



| 주최·주관 | 겨자씨 키움센터
GRANUM SINAPIS CENTER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하여 헬스케어 분야의 새로운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미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설립된 학교법인 가톨릭학원과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산하기관이자 혁신 센터입니다.



겨자씨키움센터
홈페이지



ON-LINE
YOUTUBE LIVE



정보융합진흥원·생명대학원 교황청 생명학술원 사무총장 초청 ‘의료 AI 윤리’ 특별 강연

안드레아 추치 신부,
「AI Ethics in Healthcare」 주제로 특강

가톨릭대학교 정보융합진흥원과 생명대학원이 9월 11일 'AI Ethics in Healthcare'를 주제로 특별 강연회를 개최했다.

강연회는 지난 5월 가톨릭대학교 가톨릭중앙의료원이 국내 의료기관 최초로 선포한 'CMC 의료 AI 윤리강령'의 후속

행사로 마련됐다. AI 기반 의료 혁신이 가져올 생명 윤리적 쟁점을 살펴보고, 기술 발전 속에서도 인간 중심의 가치를 지켜내기 위한 글로벌 윤리 기준과 미래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열렸다.

첫 세션에서는 정보융합진흥원 김대진 원장이 '의료 인공지능에 대한 이해'를 주제로 강연했으며, 메인 세션에서는 교황청 생명학술원 사무총장 안드레아 추치(Fr. Andrea Ciucci) 신부가 연자로 나서 'AI Ethics in Health Care'를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다.

안드레아 추치 신부는 밀라노 대교구 출신으로 북이탈리아 신학대학에서 신학 학사를, 교황청립 성 안셀모 대학에서 철학 박사 학위를 취득한 세계적인 석학이다. 교황청 가정평의회와 생명학술원 사무국 코디네이터를 거쳐 현재 교황청 생명학술원 사무총장을 맡고 있다.



또한, 그는 바티칸이 AI 윤리 증진을 위해 설립한 RenAllsance 재단의 사무총장으로 활동하며 글로벌 AI 윤리 담론을 주도하고 있다. 이번 특강도 AI 기술이 지향해야 할 윤리적 책임과 인류 공동체 연대의 가치를 다룬 연장선이었다.



부천성모병원 경기도 지역응급의료센터 재지정

2005년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정 이후
20년 이상 지역 응급의료 책임

가톨릭대학교 부천성모병원이 경기도 지역응급의료센터로 재지정돼 2026년 11월 1일부터 2029년 10월 31일까지 3년

간 운영한다.

경기도는 지난 8월 28일 경기도응급의료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역응급의료센터 36개소를 최종 지정했다. 지역응급의료센터는 중등응급환자뿐 아니라, 급성심근경색, 급성뇌졸중, 다발성 외상 등 중증응급환자의 진료를 담당하는 지역 내 응급의료체계의 핵심 기관이다.

부천성모병원은 2005년 지역응급의료센터로 처음 지정된 이후 20년 이상 지역 응급의료를 담당해 왔다. 응급의학과를 중심으로 각 진료과와 협진체계를 구축하고 응급환자의 신속한 진료와 중증도에 따른 전문치료를 시행하며 지역 책임병원으로서 역할을 이어가고 있다.

응급의료센터장 김지훈 응급의학과 교수는 “부천성모병원은 지역응급의료센터로서 지난 20년간 응급환자 진료를 이어왔고, 여러 임상과의 노력과 많은 직원들의 도움으로 가능했다”며 “앞으로도 신속한 초기 대응과 진료과 간 협진을



바탕으로 응급환자가 적시에 필요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은평성모병원 ‘나프로임신법’ 결혼 10여 년 만에 만남 기적 ‘희망아, 사랑해’

40대 부부, 나프로임신센터에서
6개월 만에 자연임신 성공

가톨릭대학교 은평성모병원 나프로임신센터를 통해 자연 임신에 성공한 40대 부부가 지난 9월 8일, 3.5kg의 건강한 남아를 출산했다.

‘나프로임신법(NaProTechnology)’은 자연적인(Natural)·가임력(Procreative)·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로 여성의 생리 주기와 생체 리듬에 초점을 맞춰 가임력

을 극대화하는 과학적으로 검증된 자연임신 치료법이다.

기적의 주인공은 김혜원·김기민 씨 부부로, 자연스러운 방법으로 건강하게 임신할 수 있다는 점에 이끌려 나프로임신법을 선택했다. 산모의 생리 주기는 다소 불규칙했으며 초기 검사에서 갑상선 기능 저하와 당뇨 경계 수치가 확인되어, 병원은 다학제 협진을 통해 임신을 방해하는 원인을 치료하고 부부가 함께 나프로임신법 교육에 참여하며 임신을 준비했다. 부부는 조금해하기보다 서로를 격려하며 나프로 차트를 꼼꼼히 기록해 최적의 가임기를 찾아냈고 치료 시작 6개월 만인 2026년 1월 자연임신에 성공했다.

임신을 유지하는 과정에서도 병원의 다학제 협진 시스템의 역할이 컸다. 고령 임신에 따른 고위험 요인과 임신성 당뇨 등 어려움이 있었지만 산부인과와 내분비내과를 아우르는 다학제 협진으로 고비를 넘겼다. 또한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고위험 산모·신생아 집중치료센터도 긴장 상태를 유지하는 등 의료진의 세심한 관리 덕분에 태아와 산모를 건강하게 지켜낼 수 있었다.

은평성모병원 나프로임신센터는 나프로임신법을 개발하



고 40여 년간 연구해 온 ‘미국 성 바오로 6세 연구소’의 전문 자격을 이수한 베테랑 의료진으로 구성됐으며, 국내 최초로 나프로임신법을 도입한 가톨릭중앙의료원의 축적된 임상 노하우를 바탕으로 까다롭고 다양한 난임 케이스에 대해 체계적인 맞춤 진료를 제공하고 있다.

CMC 단신

성의교정

개발도상국 의료진에 '필수수술' 가르친다

가톨릭국제보건의료연구소가 개도국 필수 외과 역량 강화를 위해 '2026 이중국립필수수술 필수수술 연수'를 실시한다. 10월부터 캄보디아 등 4개국 의료진과 보건 관리 9명이 서울성모병원과 의정부성모병원에서 정책 이수 및 임상 실습을 진행한다. 이번 연수는 개복술·제왕절개 등 핵심 수술 역량을 전수해 협력국이 자립적인 필수수술 체계를 구축하도록 돕는 데 중점을 둔다.

서울성모병원

전이성 전립선암 방사성리간드치료 누적 200회 달성



서울성모병원 암병원 비뇨기암센터가 국내 최초 시행 이래 전이성 전립선암 환자를 대상으로 '루테튬-177(Lu-177) PSMA 핵의학치료' 누적 200회를 달성했다. 진단과 치료를 결합한 첨단 테라노스틱스(Theranostics) 치료법으로 암세포만 선택적으로 정밀 타격한다. 방사선이 암세포에만 국소 작용해 주변 정상 조직의 손상을 줄이고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것이 강점이다.

여의도성모병원

네팔 홍수 피해 복구 후원금 전달



여의도성모병원 성모자선회는 최근 네팔 홍수 피해지역 지원을 위해 후원금을 재단법인 한마음한몸운동본부에 전달했다. 이번 후원은 대홍수로 삶의 터전을 잃은 네팔 주민들의 긴급 구호와 조속한 일상 회복을 돕기 위해 마련됐으며, 여의도성모병원 직원들은 지구촌 이웃에게 위로와 희망을 전하는 뜻을 모았다.

의정부성모병원

경기북부 권역외상심포지엄 개최



의정부성모병원은 최근 '제11회 경기북부 권역외상심포지엄'을 열고 국내외 외상 진료 및 재난 대응 체계를 점검했다. 행사에는 국내외 외상 전문가와 소방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해 글로벌 재난 대응 사례와 경기북부 중증외상 이송 현황을 공유했다. 참석자들은 권역외상센터와 지역 소방 간 협력을 강화해 환자 이송과 치료 체계를 고도화하기로 뜻을 모았다.

'2027 Leading Hospital' 도약 위한 부서장 및 교원 워크숍 개최



의정부성모병원이 개원 70주년을 앞두고 상급종합병원 진입과 '2027 Leading Hospital' 도약을 다짐하는 워크숍을 열었다. 9월 5일과 19일 두 차례에 걸쳐 열린 행사에는 보직자와 부서장, 교원들이 참석해 병원의 중장기 발전 과제와 미래 성장 전략을 논의했다. 병원은 이번 논의를 바탕으로 상급종합병원 도약 및 지역 거점리딩 병원으로서의 입지를 다져갈 방침이다.

부천성모병원

'대장암의 달' 맞아 건강강좌 개최



부천성모병원이 '대장암의 달'을 맞아 지난 9일 성가정관 옴니버스에서 환자와 지역주민을 위한 대장암 건강강좌를 개최했다. 강좌에서는 내시경진단부터 방사선·수술 치료, 영양관리까지 대장암 전부를 다뤘으며 전문의와의 질의응답도 이어졌다. 병원은 조기 검진의 중요성을 알리고 주민들의 올바른 건강관리를 돕기 위해 관련

프로그램을 지속할 계획이다.

은평성모병원

AX Summit 2026 개최



은평성모병원이 9월 29일 대강당에서 '은평 AX Summit 2026'을 열고 교직원이 직접 개발한 시현장 혁신 성과를 공유했다. 행사에서는 교직원들이 발굴해 실무에 배포한 41개 생성형 AI 솔루션 중 간호·환자안전·진료 분야 11건의 사례 발표와 nN(병원 전자기록 시스템) 진료 연동 시연이 진행됐다. 병원은 현장 중심의 AI 활용을 지속 확대해 스마트 업무 환경을 다져갈 방침이다.

인천성모병원

한국교직원공제회와 교직원 복지서비스 확대 맞손



인천성모병원이 최근 라파엘관 대회의실에서 한국교직원공제회와 교직원 복리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향후 맞춤형 복지 제도 안내와 상담은 물론 문화·복지 프로그램을 공동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공제회는 이번 협약을 기념해 내원객 이동 편의를 위한 휠체어 10대를 병원에 기증했다.

대전성모병원

'시그나 프리미어 3.0T' 도입



대전성모병원이 첨단 AI 영상 기술이 결합된 고성능 MRI '시그나 프리미어(3.0T)'를 도입해 진단 역량을 강화했다. 이 장비는 S를 통해 영상 노이즈를 줄여 진단 정확도를 높이고 검사 시간을 단축한 것이 특징이다. 넓은 내부 공간과 가볍고 유연한 AR 코일을 적용해 환자의 검사 편의성과 안락함도 크게 개선했다.

동정

* 기관별 / 가나다 순

세계적 유전체학자 찰스 리 교수, 가톨릭대에서 연구활동 펼친다



유전체 분야의 세계적 석학 찰스 리(이장철) 석좌교수가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에서 차세대 유전체 의학 연구를 본격화한다. 인간 유전자 복제수 변이(CNV)를 최초 규명한 찰스 리 교수는 정밀의료와 희귀·난치질환 연구에 집중할 계획이다. 대학은 병원의 풍부한 임상 데이터와 교수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연계해 중개연구 및 국제 공동연구를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수상



가톨릭조혈모세포은행 원애경 연구원이 '제9회 생명나눔 주간' 기념식에서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원 연구원은 지난 22년간 조직적합성항원(HLA) 검사 업무를 전

담하며 수만 건의 정밀 검사를 통해 기증 희망자와 환자를 잇는 가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왔다. 이를 통해 적기 이식 지원과 조혈모세포 기증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2026 한국건성안학회 'KDES 최우수 학술상' 수상



여의도성모 안과병원 나경선 교수가 최근 '2026 한국건성안학회'에서 최우수 학술상을 받았다. 나 교수는 눈물 속 염증 지표를 실시간 정밀 측정하는 센서 기술을 개발해 연구 성과를 인정받았다. 이번 성과를 바탕으로 연구팀은 향후 안구표면 질환을 정밀 분석하고 맞춤형 치료를 돕는 AI 진단 플랫폼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안전 유리체 절단장치' 미국 특허 등록

성빈센트병원 안과 지동현 교수가 개발한 망막수술 의료기기 '안전 유리체 절단장치'가 미국 특허와 국내 특허 등록을 마쳤



다. 절단기 끝에 메쉬형 보호막을 적용해 망막 손상을 막고 유리체만 선택적으로 제거하도록 설계된 것이 특징이다. 지 교수는 이번 등록을 발판 삼아 임상 적용을 위한 후속 연구와 상용화 기술이전을 추진할 방침이다.

아태 알코올·중독학술대회 우수 포스터상



대전성모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정조은 교수가 '한국형 예일 음식 중독 척도 수정판 2.0(mYFAS 2.0)'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했다. 국내 성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표준화된 평가 척도를 마련해 비만 및 섭식장애 연구의 새 발판을 다졌다는 평가다. 정 교수는 이 연구로 아시아태평양 알코올 및 중독학회에서 우수 포스터상을 받았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가톨릭중앙의료원, 거제·통영 수해 피해 지역에 성금 1,000만 원 전달

수해 피해 주민들의 조속한 일상 회복 위해 사랑 나눔 실천

가톨릭대학교 가톨릭중앙의료원(민창기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이 지난 8월 28일에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경남 거제시와 통영시 지역 주민들의 일상 회복을 돕기 위해 성금 1,000만 원을 전달했다.

이번 성금은 갑작스러운 수해로 삶의 터전을 잃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 주민들의 생활 안정과 피해 지역의 조속한 복

구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가톨릭중앙의료원의 사회공헌 활동 조직인 가톨릭메디컬엔젤스(Catholic Medical Angels)는 천주교 마산교구에 성금을 전달했으며, 향후 피해 및 복구 상황을 살피며 필요한 지원을 이어갈 예정이다.

가톨릭메디컬엔젤스는 국내 대형 재난이 발생할 때마다 피해 복구를 위한 지원을 지속해 왔으며, 의료취약계층을 위한

무료 진료와 긴급 의료지원, 해외 의료봉사 등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펼치고 있다.

민창기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은 “이번 성금이 피해 주민들이 하루 빨리 일상을 되찾고 피해 지역이 복구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엄재열 대표, 연구기금 1억 원 기부

“같은 질환으로 투병하는 환자들에게 희망이 되길”

진원피앤씨(주) 엄재열 대표, 최주원 배우자가 악성 종피종 환자들의 치료와 연구 발전을 위한 기금으로 1억 원을 전달했다. 전달된 기금은 악성 종피종 환자들의 치료법 개발과 질환 연구를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특히 이번 기부는 엄재열 대표가 현재 본인 역시 악성 종피종으로 투병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뤄져 더욱 뜻깊다. 엄 대표는 자신의 치료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과 환자들의 고통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에, 같은 질환으로 고통받는 환자들에게 도움을 주고 치료법 개발과 연구에 힘을 보태고자 기부를 결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엄 대표는 “저 역시 같은 질환으로 투병하고 있기에 환자들이 겪는 고통과 어려움을 잘 알고 있다”며 “소중한 기금이 악성 종피종 치료법 개발과 연구에 도움이 되고, 환자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전하는 밑거름이 되기를 바란다.”고 뜻을 전했다.

이에 서울성모병원 이지열 원장은 “어려운 투병의 시간을 보내고 계신 가운데에서도 악성 종피종 환자들을 위해 소중한 연구기금을 기부해 주신 엄재열 대표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기부자의 뜻이 헛되지 않도록 악성 종피종의 치료법 개발과 연구 발전을 위해 소중하게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기부가 환자들에게는 치료에 대한 희망을, 의료진과 연구진에게는 더 나은 치료법을 개발할 수 있는 소중한 동력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악성 종피종 환자들의 치료 환경 개선과 연구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엄재열 대표는 이번 1억 원을 포함해 악성 종피종 연구 및 치료법 개발을 위한 기금으로 총 2억 원을 기부하기로 약정하며 지속적인 나눔과 연구 지원을 이어갈 예정이다.



김창재 교수, 발전기금 2,000만 원 기부

정년퇴직을 맞아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뜻깊은 나눔 실천

가톨릭대학교 은평성모병원 마취통증의학과 김창재 교수가 정년퇴직을 맞아 오랜 시간 함께해 온 병원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총 2,000만 원의 발전기금을 기부했다.

김창재 교수는 이번 기부를 통해 은평성모병원 발전

기금 1,000만 원과 마취통증의학과 발전기금 1,000만 원을 각각 전달했다. 그동안 몸담아 온 병원에 대한 애정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 앞으로도 은평성모병원과 마취통증의학과가 더욱 성장하며 환자들에게 신뢰받는 의료를 이어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번 기부를 결정했다.

김창재 교수는 “오랜 시간 함께해 온 은평성모병원이 앞으로도 계속 성장하며 환자들에게 더 나은 의료를 제공하는 병원이 되기를 바란다”며 “정든 병원과 마취통증의학과와 앞날에 작은 보탬이 될 수 있어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병원 측은 “오랜 시간 병원과 함께해 주신 데 이어, 정년퇴직을 맞아 소중한 나눔까지 실천해 주신 김창재 교수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며 “전해주신 소중한 뜻을 이어받아 병원과 의료 발전을 위해 의미 있게 활용하겠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2026년 8월 신규 약정자 명단



가톨릭중앙의료원				이상태	4,500,000원	이세훈	4,500,000원	심주현	매월	50,000원	이민아	매월	10,000원	박정선	200,000원	신윤숙	5,000,000원
(주)선진	2,221,830원	박선아	50,000원	인천성모 권역별호스피스센터			500,000원	아웃백스테이크하우스				233,100원	이철영	100,000원	조현기	10,000,000원	
이미화	360,000원	이은덕	10,000원	재단법인 가송재단			5,000,000원	이하림	매월	20,000원	이혜선	매월	10,000원				
대학(성의교정)				재단법인 돈암장학회			4,188,000원	이혜선		30,000원	이혜선	매월	30,000원	의정부성모병원			
(사)대한산업보건협회			1,200,000원	재단법인 창강재단			16,740,000원	익 명	매월	10,000원	익 명		30,000원	이태규	매월	50,000원	
(사)한국가톨릭호스피스협회			500,000원	정은정	4,500,000원	채규태	2,700,000원	익 명		50,000원	익 명		1,000,000원	부천성모병원			
(재)아산사회복지재단			10,000,000원	한국지도자육성성장학재단			3,500,000원	임지수		20,000원	장 선		40,000원	강영순(미카엘라)	50,000원	강영순(미카엘라)	1,000,000원
(주)뽕포유	1,000,000원	Fr.백중호	2,000,000원	최은석	30,000,000원	해성문화재단	5,154,000원	장 선		50,000원	전건희		50,000원	강영순(미카엘라)	100,000원	강영순(미카엘라)	1,000,000원
강승원	4,500,000원	강재영	4,500,000원	허 은	9,000,000원	홍만기	4,500,000원	정용석		100,000원	정용석		900,000원	강영순(미카엘라)	300,000원	김영규	1,000,000원
김강희	9,000,000원	김경남	4,500,000원	서울성모병원				정이현	매월	30,000원	정현수		10,000원	김영규	1,600,000원	송호철	1,000,000원
김두라	1,000,000원	김양제	4,500,000원	(주)남유에프엔씨			2,183,300원	진원피앤씨(주)		10,000,000원		10,000,000원		김영희	10,000원	김형미	10,000원
김윤정	500,000원	김창숙	4,500,000원	강한호	매월	10,000원	권윤정	100,000원	최주원		10,000,000원		10,000,000원	이현숙	100,000원	익 명	80,000,000원
김한지	4,500,000원	성상민	4,500,000원	김병진	1,000,000원	김보미	500,000원	최주원		90,000,000원		90,000,000원		익 명	30,000원	익 명	20,000,000원
사회적협동조합 신희사회공헌재단			1,000,000원	김애진	100,000원	김영숙	10,000원	최한준	매월	50,000원	하명순	매월	10,000원	은평성모병원			
송천재단	6,000,000원	오문선	3,000,000원	김준태	500,000원	김준태	매월	50,000원	하명순	매월	10,000원	황병창	5,000,000원	김형미	10,000원	김형미	10,000원
유정순	500,000원	유한재단	5,580,000원	김지수	매월	20,000원	김현중	100,000원	황병창	45,000,000원				이현숙	100,000원	익 명	80,000,000원
이동욱	9,000,000원	이상원	2,700,000원	김현중	900,000원	박애희	매월	50,000원	여의도성모병원					익 명	30,000원	익 명	20,000,000원
				백지후	5,000원	송문선	100,000원						정화자	10,000,000원	한지연	5,000,000원	

가톨릭중앙의료원 후원회사무국 발전기금팀

TEL. 02-2258-7992~3, 7995~7 FAX. 02-2258-7994 E-mail. cmcfund@catholic.ac.kr 카카오톡. “CMC 발전기금” 검색

▶ 생명존중기금(일반후원) 입금 계좌 : 우리은행 1005-700-920886 (예금주: 가톨릭중앙의료원)



모바일 후원
바로 가기



대전성모병원

제12대 권중범 의무원장 취임

미토콘드리아 면역의학 연구센터 출범,
국내외 융합 및 공동연구 확대

가톨릭대학교 대전성모병원이 9월 1일, 병원 9층 대강당 상 지홀에서 제12대 의무원장 이·취임식을 개최했다.

이번 이·취임식에서는 제11대 최은석 의무원장(재활의학과 교수)이 이임하고, 제12대 권중범 의무원장(심장혈관흉부외과 교수)이 취임했다.

강전용 병원장을 비롯해 보직자와 교직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취임식은 이임사와 취임사, 강전용 병원장의 축사

순으로 진행됐다. 제12대 권중범 의무원장의 공식 임기는 2026년 9월 1일부터 시작된다.

최은석 전 의무원장은 이임사에서 “지난 4년의 임기는 코로나19 대유행, 의정 갈등으로 인한 의료공백 사태 등 비상경영체제의 연속이었던 것 같다”며 “하지만 문제가 심각하고 복잡할수록 해결 방안은 원칙에 집중해야 함을 깨달은 시간이었으며, 각자의 영역에서 함께 최선을 다해주시는 교직원 모두에게 감사하다.”고 마음을 전했다.

권중범 의무원장은 취임사를 통해 “개원 이후 57년간 가톨릭 의료정신과 전인치료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힘써온 대전성모병원에서 의무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돼 영광스러운 동시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앞으로 좀 더 나은 환경에서 환자를 치료하고 중증, 고난도질환을 책임질 수 있는 역량을 배가해 지역사회 의료 발전에 기여하는 병원을 만들어 나가겠



다.”고 포부를 밝혔다.

신임 권중범 의무원장은 1989년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가톨릭대학교 대학원에서 석사, 박사 학위를 취득했으며, 심장수술(관상동맥 및 판막수술), 비디오 흉강경 수술, 정맥류 질환, 다한증, 폐질환, 투석혈관(동정맥루 조형술)을 전문으로 진료하고 있다.

간호 대학

간호대학간 국제협력 확대 방안 논의

가톨릭대학교 간호대학이 최근 방문한 홍콩중문대학교 네더솔 간호대학 학장단과 함께 국제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양 대학은 학생·교수 교류 확대, 공동연구 추진, 학술 및 국제협력 강화 등을 주요 의제로 의견을 나눴다.



방문에는 홍콩중문대학교 네더솔 간호대학 Wai Tong Chien 학장과 Ka Ming Chow 부학장이 참석했으며, 가톨릭대학교 간호대학에서도 학장단과 관련 연구 분야 교수 등이 함께해 양 대학의 교육·연구 분야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홍콩중문대학교 네더솔 간호대학은 호스피스·완화의료, 암간호, 노인간호, 만성질환 관리 등을 주요 연구 분야로 갖추고 있다. 특히 QS 세계대학 학문분야평가 2026 간호학 분야에서 세계 공동 6위, 아시아 공동 1위에 선정된 바 있다.

이번 방문을 통해 양 대학은 국제적 교육·연구 협력을 확대하고 지속적인 교류를 이어가기 위한 협력 기반을 마련했다.

캄보디아 옴니버스 현장체험 참여

가톨릭대학교 간호대학은 2026년 8월 16일부터 22일까지 6박 7일간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진행된 '2026학년도 가톨릭대학교 성의교정 캄보디아 옴니버스 현장체험'에 참여했다.



이번 현장체험에는 간호학과 학생 15명이 참여했으며, 간호대학에서는 최민정 부교수와 윤서희 연구조교가 함께했다. 참가자들은 캄보디아 프놈펜의 국립병원 및 센터 등 현지 의료·보건기관을 방문해 현지 보건으로 환경을 직접 경험하고 다양한 전공 및 직종의 참가자들과 교류했다.

특히 의학과, 의료진, 교목실, 학사지원팀 등 성의교정 구성원들과 함께 현장체험에 참여하며 전공 간 협력의 의미를 되새기고 국제적 보건으로 환경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계기를 마련했다.

인천 성모

카자흐스탄 의료인·의대생 초청 연수 진행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이 최근 카자흐스탄 의료인과 의대생을 대상으로 초청 연수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이번 연수는 인천성모병원, 카자흐스탄 의료관광 전문기관 '메디컬 투어 카작', 국내 '레이비즈니스그룹'이 함께 추진한 프로그램으로, 현지 의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의대생 등으로 구성된 연수단이 참여했다.



연수단은 인천성모병원의 재활치료 시스템과 병원의 진료 시스템과 운영 현황을 살펴보는 동시에, 방사선 치료 장비인 '메르디안 라이낙'에 대한 교육을 통해 방사선 치료 과정과 장비 운용 현황도 확인했다. 또한 인천성모병원 정형외과 허준영 교수는 실제 환자 사례를 바탕으로 무릎관절 질환의 진단과 치료 방법, 수술법 등에 대한 전문 강의를 진행했다.

이번 연수를 이끈 토레쿨 메레케 매니저는 “올해로 두 번째 연수를 진행하고 있는데, 매년 연수생들의 반응이 매우 좋고 많은 것을 배우고 돌아가고 있다”며 “의료 교육을 위해 협력해 준 인천성모병원에 감사드립니다.”고 전했다.

성빈 센터

국내 최초 항암 탈모 예방 두피냉각시스템 도입

가톨릭대학교 성빈센터병원이 국내 의료기관 최초로 항암치료 중 발생하는 탈모 예방에 도움을 주는 PAXMAN 두피냉각시스템을 도입했다. 항암치료 부작용인 탈모는 환자의 심리적 위축과 일상 복귀 자해는 물론, 치료 결정과 순응도에도 직결되는 문제다.



PAXMAN 두피 냉각 시스템은 항암제 투여 전후 냉각 캡으로 두피 온도를 18~22도까지 낮춰 혈관을 수축하고, 모낭으로 가는 약물 전달과 대사 활동을 줄여 탈모를 최소화한다. 또한 PAXMAN은 미국 FDA 승인을 받은 시스템으로, 임상 연구를 통해 항암치료 중 탈모 발생 비율을 현저히 줄이고, 치료 후 모발 회복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보이고 있다.

성빈센터병원은 유방암 환자 가운데 탁상계·안트라사이클린계의 항암제로 치료받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PAXMAN 두피 냉각 치료를 시행할 계획이다.



K-메디컬의 확장, 서울성모병원 술기 베트남에 심는다

베트남 최초 로봇수술 도입 공공병원과 협약, 고난도 암 치료·시 노하우 공유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이 베트남 남부 외과 의료의 중심인 호찌민 빈단병원(Binh Dan Hospital)과 손을 맞잡았다. 서울성모병원의 첨단 로봇수술 술기와 중증 암 치료 노하우를 전수하고, 긴밀한 글로벌 진료 협력망을 다지기 위해서다.

양 기관의 인연은 지난 3월 빈단병원 대표단의 서울성모병원 방문에서 출발했다. 서울성모병원의 우수한 임상 인프라와 첨단 의료 역량을 직접 확인한 빈단병원의 제안으로 5개월간 실무 논의가 이어졌고, 양국 의료 발전을 견인할 파트너십으로 결실을 맺었다.

파트너로 나선 빈단병원은 1954년 개원한 1,200병상 규모의 베트남 대표 1급 외과 공공병원이다. 2016년 베트남 최초로 성인 로봇수술을 도입해 독보적인 임상 위상을 쌓아왔다.

협약식은 빈단병원의 '로봇수술 4,300례 달성 기념 국제학술대회' 현장에서 열려 현지 의료계의 큰 주목을 받았다. 행사에서 이지열 서울성모병원장은 비뇨의학 로봇수술 심포지엄 좌장으로서 전립선암 최신 임상기초연구 성과를 발표했다. 이어 서울성모병원의 로봇수술센터 및 시센터 운영 노하우와 스마트병원 전환(AX) 전략을 공유해 현지 의료진의 뜨거운 호응을 이끌어냈다.

-  **첨단 술기 전수** 고난도 비뇨의학과·암 로봇수술 기법 및 임상 연구 노하우 집중 전수
-  **학술·연구 교류** 중증 암 분야 공동 연구 추진, 학술 교류 정례화 및 의료진 상호 연수
-  **원스톱 환자 연계** 현지 난치성 중증 환자를 서울성모병원으로 신속 연계하는 핫라인 가동

서울성모병원은 빈단병원이 동남아를 대표하는 첨단 로봇수술 허브로 도약하도록 전방위 지원을 펼친다. 아울러 현지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고난도 중증 환자를 서울로 연계 치료하는 실질적 진료 네트워크를 본격 가동한다.

이지열 병원장은 "이번 협약은 아시아 최고 수준인 서울성모병원의 로봇수술 역량을 글로벌 무대에 효과적으로 전파하는 계기"라며 "양 병원이 함께 성장해 현지 환자들에게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중동에 이어 동남아시아까지 뻗어 나가는 서울성모병원의 K-메디컬 행보는 앞으로도 이어질 예정이다.

당신의 건강 파트너!

여의도성모병원을 만나는 쉬운 번호

☎ 1661-7575



가톨릭대학교

여의도성모병원

표준화된 진료와 연구



보건복지부인증



AAHRPP인증 획득

www.cmcsungmo.or.kr

**척추변형
척추측만증
척추내시경수술**



정형외과
장동균 교수

[오전] 금
[오후] 화, 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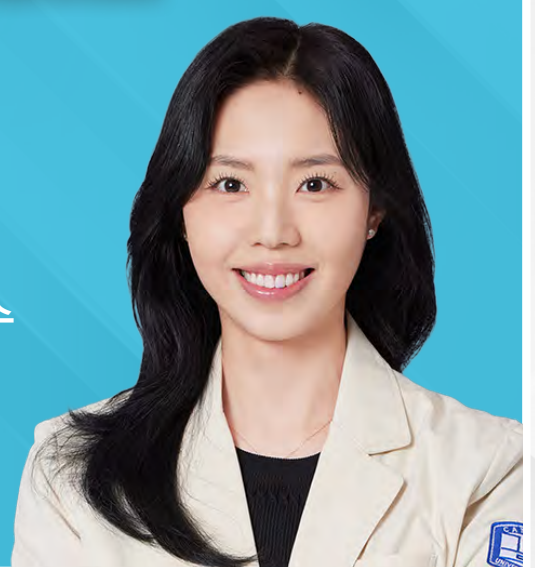


**어깨
팔꿈치 질환
일반 정형외과**



정형외과
윤은지 교수

[오전] 월, 목
[오후] 월



2026년 9월 신규 의료진을 소개합니다

**심부전
협심증
심근경색**



순환기내과
황석재 교수

[오후] 월, 화, 목



**부인암
로봇수술
단일공골반경수술**



산부인과
조상현 교수

[오전] 화, 수
[오후] 화, 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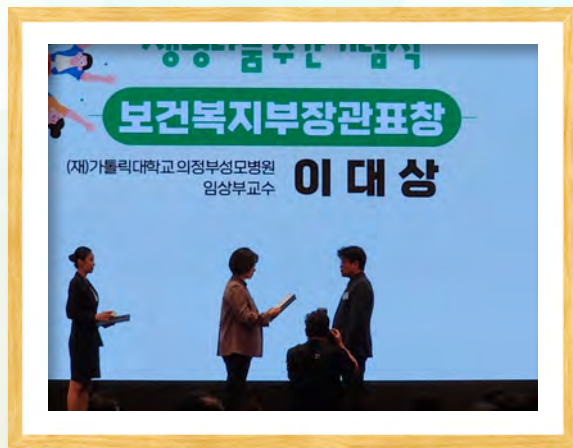


Youtube meet the Yeouido St. Mary's Hospital



가톨릭대 의정부성모병원, 뇌사추정자 통보 전국 3위... 생명나눔 실천 앞장

외상외과·중환자실·신경과·신장내과·장기이식센터 등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
2026년 생명나눔주간 맞아 외상외과 이대상 교수, 사회사업팀 성현빈 수석 보건복지부장관표창



가톨릭대학교 의정부성모병원이 중증외상환자의 신속한 치료와 장기기증을 통한 생명나눔 실천에 앞장서며 의미 있는 성과를 이어가고 있다.

경기북부 권역외상센터를 운영 중인 의정부성모병원은 중증외상환자 치료뿐만 아니라 회복 불가능한 뇌사 상태 환자의 장기기증을 위한 다학제 협력 시스템을 구축해 운영 중이다. 뇌사추정자 발생 시 중환자실, 신경과, 신장내과, 외과, 장기이식센터가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환자 상태 안정화, 뇌사조사, 장기이식 수술 및 기증자 예우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전문적으로 지원한다.

실제 의정부성모병원은 2026년 1월부터 8월까지 전국 148개 뇌사추정자 통보 기관 중 59건의 통보 실적을 기록하며 전국 3위를 차지했다. 또한 현재까지 14건의 뇌사자 관리와 8건의 신장이식을 성공적으로 진행하는 등 권역 내 핵심 의료기관으로서 생명나눔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이러한 공로를 인정받아 2026년 생명나눔주간 기념식에서 의정부성모병원 외상

외과 이대상 교수와 사회사업팀 성현빈 수석사회사업가가 각각 보건복지부장관표창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외상외과 이대상 교수는 중증외상환자 치료 및 뇌사자 관리 체계 구축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으며, 성현빈 수석사회사업가는 10여 년간 장기기증 상담평가를 담당하며 기증자와 수혜자의 권익 보호 및 윤리적 기증 문화 정착에 힘쓴 공로를 인정받았다.

이대상 교수는 "중증외상환자의 생명을 살리는 것이 의료진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지만, 최선의 치료에도 불구하고 회복이 어려운 환자의 숭고한 생명나눔이 또 다른 생명에게 새로운 삶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외상외과를 비롯해 중환자실, 신경과, 신장내과, 장기이식센터 등 모든 의료진이 한 마음으로 협력해 기증자의 뜻이 소중한 생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환자와 보호자가 함께 하는

면회

다시 시작합니다



면회인원

1회 최대 **2명**까지



면회횟수

1회/1일 1시간 이내



면회시간

오전 **10시** ~ 오후 **2시**



감염예방

손위생과 **기침 예절** 철저히 준수



면회에절

서로를 배려하는 **면회 예절** 준수



발열, 기침, 인후통, 설사 등

감염증상이 있는 경우 **면회를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예약
1811-7755
평 일 : 오전 8시~오후 5시
토요일 : 오전 8시~12시



가톨릭대학교
은평성모병원

표준화된 진료와 연구



보건복지부인증



AAHRPP인증획득

www.cmcep.or.kr

나프로임신법으로 결혼 10여 년 만에 만난 소중한 새 생명



김혜원 · 김기민 부부와 희망이 ♥ 영성부원장 황재호 신부님, 영성간호부장 송미수 수녀님 ♥ 나프로임신센터 의료진

희망아, 사랑해

10여 년의 기다림 끝,
나프로임신법 시작 6개월 만에 만난 기적

자연스러운 방법으로 건강하게 임신하기 위해
부부가 함께하는 나프로임신법을 선택했습니다.
치료 시작 6개월 만에 자연임신에 성공해,
9월 8일, 3.5kg의 건강한 아들을 품에 안았습니다.

자연임신부터 건강한 출산까지 책임지는 나프로임신센터



등록



초기 진단
프로그램 교육



생체지표 관찰
가임력 분석



맞춤 원인 치료
가임력 회복



건강한
자연임신

나프로임신센터 진료 특징



생체지표 관찰 기반
난임 근본 원인 치료



산부인과·비뇨의학과
내분비내과 다학제 협진



인위적 시술 배제로
신체 부담 최소화



고위험 산모·신생아
집중치료센터 연계